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08.30.(제3769)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중략)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 마더 테레사(Mother Teresa) -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오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14주

집례: 권오진 목사
오석만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입 레 송...550장(1,3절)...다 같 이 ※영 광 송.....5장.....다 같 이
※예배의부름.....집 레 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은 마음이 즐거울지라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
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 105:3-4)

※경 배 찬 송.....21장.....다 같 이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서로를 비교하고 내 뜻만 고집하며, 곁에 있는
이들을 귀하게 대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
다. 이제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품
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 독 문...18번(시편 31편)...다 같 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

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 도.....박범택 장로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헌 금.....다 같 이

※봉 헌 송...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목회·봉헌기도.....담임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안현수 집사

구 약 창 세 기 1:26-28

신 약 마 태 복 음 25:31-40

찬 양.....주 하나님께 영광을 찬 양 대

증 언.....권오진 목사

『 사랑이 사랑을 깨웁니다 』

결단의 찬송과 기도.....다 같 이

※복 의 선 언.....담임목사

※후 주.....반 주 자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30	영 아 부	6

창립70주년
나눔콘서트 및
초즌캠페인

오후 1시 30분 / 대예배당

다음 주: 전교인 수양회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30	영 아 부	6
주 일 2 부 예 배	278	유 치 부	12
주일실시간방송예배	51	유 초 등 부	17
목 장 모 임	224	중 · 고 등 부	22
수 요 성 서 연 구	45	청 년 부	19
수요실시간방송예배	9	예 수 소 망 반	29
금 요 성 령 집 회	48	생 명 의 삶	방학
금요실시간방송예배	34	주 일 성 서 연 구	방학
합 계	719	합 계	105

헌 금			
주 일 헌 금	1,882,000	감 사 헌 금	1,300,000
교회학교헌금	210,400	생 일 헌 금	80,000
월 정 헌 금	1,060,000	창립70주년헌금	4,520,000
십 일 조	7,280,000	특 별 헌 금	200,000
합 계 16,532,400원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월 - 화	시편 강해 손민승 목사
수 - 목	레위기 강해 권오진 목사
금 - 토	히브리서 강해 오석만 목사

수요성서연구
9월 2일(수)10:30, 손민승 목사

사무엘상·하 1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년”

본문: 사무엘상 16장 1-13절

- 금 주 기 도 : 홍석은 권사
- 다음주기도 : 홍주연 권사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박지연 전도사
방 학
중예배당

예 배 및 집 회 안 내

구	분	시	간	장	소
---	---	---	---	---	---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첫	단	추	기 도 회	첫째 주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	요	성	서 연 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	요	성	령 집 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초 등 부 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목	장	모	임	매월 둘째, 넷째주 주일예배 후	목 장 별

8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김선욱 구용연	김진태 이미옥 이재화 홍석은 오정규 조은지
안내위원	이해순	
강단헌화		
수납위원	김동수 심영관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조규성 김명훈 이성호	

지난 주일 증언

“등을 질 것인가 등에 질 것인가”

구약 창세기 4:1-10

신약 갈라디아서 6:2-5

설교 : 권오진 목사

현대인들의 고독의 문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중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51.1%에 달했습니다.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일상적인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도움을 부탁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답한 비율이 30.2%였으며,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과반이 넘는 50.2%에 이르렀습니다. 그런가하면 2024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5.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연결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고립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수많은 사람이 타인과의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한 채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원죄와 관계의 단절

성경은 인간이 겪는 이 고독과 관계 단절의 근원이 바로 ‘원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죄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원죄의 결과 인간이 마주하게 된 현실이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네 가지 차원의 관계의 단절이 발생했음을 증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닐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고 숨는 단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둘째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본래의 순결한

모습 속에 수치심과 죄책감, 불안이 밀려오며 자기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셋째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내 하와를 향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며 찬양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랑하고 세워주던 관계가 비난과 책임 전가의 관계로, 그리고 서로 돕는 상생의 관계가 이제 경쟁과 파워게임의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관계마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시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탄식의 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고독과 단절의 문제는 바로 이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이 관계의 깨어짐은 자녀 세대인 가인에게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동생을 죽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살인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단순히 제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분입니다. 가인의 마음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음을 밝혀줍니다. 반면 가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나 삶의 예배 없이, 형식적인 의무감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거절하신 것은 가인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삶과 예배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6-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었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 속에 있는 죄가 그를 원하고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야 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대신 결국 들판에서 하나뿐인 동생 아벨을 쳐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기 가인이 사용한 지키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메르’입니다. 이 단어는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성을 지키듯, 목자가 양 떼를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듯 파수하고 케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항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의 파수꾼(쇼메르)이 되어야 합니까? 왜 내가 저 사람을 케어하고 지켜야 합니까?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짐일 뿐입니다.” 동생의 생명과 영혼에 대해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전형적인 태도는 바로 형제에게 ‘등을 지는’ 삶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사랑으로 돌봐야 할 동생이 아니라, 내 유익을 방해하는 경쟁 상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에게 완벽하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먼 옛날 가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마다 가인의 차가운 음성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배우자나 자녀가 하루 동안 겪은 힘든 일과 상처를 털어놓으려 하면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만 힘들어? 나도 오늘 밖에서 힘들어 죽겠어. 내 일도 복잡하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말하곤 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공감하고 들어주기보다 차갑게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업무 과중이나 갑작스러운 불행으로 힘들어할 때, 내 성과와 책임만 생각하며 못 본 척 고개를 돌립니다. “내 일만 잘하면 되지, 남의 삶까지 내가 왜 챙겨?”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등을 돌려버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던 교우가 눈물 흘리며 기도를 부탁하거나 힘들어할 때, “그건 그 사람 사정이지,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내 삶 하

나 건사하기도 바쁜데”라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웃에게 등을 지는 삶이 계속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고독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원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등을 지고 살 때에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저히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죄와 고통의 짐을 자신의 등에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무거운 짐을 등에 지셨기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을 서로 지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시더니,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가지 다른 단어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짐’은 ‘바로스’입니다. 이는 질병, 경제적 파산, 이별의 슬픔처럼 혼자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성경은 이 무거운 바로스의 짐을 성도들이 어깨를 맞대어 함께 나누어 지라고 명하십니다. 반면 5절의 ‘짐’은 ‘포르티온’입니다. 이는 군인이 메는 개인 배낭처럼 각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개인적 책임과 의무를 뜻합니다. 즉,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책임은 스스로 지되, 형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은 서로 어깨를 내어주어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이웃의 무거운 짐을 진다고 하면 참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남의 인생을 다 해결해 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웃의 짐을 지는 것은, 지쳐 있는 형제의 손을 잡고 함께 예수님의 넉넉한 등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등 위에 이웃과 내가 함께 안기는 것입니다.

저희 세 아이가 어렸을 적, 재밌게 봤던 <토토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엄마가 병에 걸려 엄마와 아빠가 모두 병원에 있을 때, 엄마가 보고 싶은 아이들에게 고양이 버스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태우고 병원에 날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째가 7살, 둘째가 5살, 막내가 7개월이었을 때, 첫째가 막내를 등에 업었습니다. 둘째에게 누나 허리 꼭 잡아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아빠는 토토로의 고양이 버스가 되어 첫째를 번쩍 업어 이 방 저 방을 뛰어다니면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 했습니다. 비록 저는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무게감에 힘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짐도 넉넉히 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웃의 무거운 짐을 등에 지는 것은 거창한 영웅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지친 성도가 있다면 “이번 주 반찬은 내가 좀 챙겨줄 테니 한숨 돌려요” 하며 따뜻하게 말 건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은 성도가 있다면 그 손을 가만히 잡고, 말없이 함께 눈물 흘려주며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피곤하지만, 내게 와서 힘들고 속상한 마음을 터놓는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따뜻이 안아주며 “그런 일이 있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많이 속상했겠다”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환우들을 돌보시는 가족들,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십니까. 가족의 아픔을 내 힘으로 짊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의 아픔을 등에 지고 예수님의 등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넓은 등 위에서 서로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보육원 출신으로 어린 시절 수많은 상처와 외로움을 겪었던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 교회 영치기 목장모임에도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자립준비청년(옛,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퇴소해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사회 내에서 고립과 방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김성민 대표 역시 절망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라는 질문에 가인은 “아닙니다”라며 등을 돌렸지만, 김 대표는 “네, 주님. 제가 내 동생들의 지킴이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후원금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이겨낼 일자리와 따뜻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키퍼’를 설립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고용해 일 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

며 정서적·경제적 자립을 돕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인처럼 동생에게 등을 돌리는 세상 속에서, 동생들의 무거운 삶의 짐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짊어진 쇼메르, 브라더스 키퍼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형제 자매의 짐을 함께 지고 있습니까? 혼자서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서로 지고 예수님의 품에 함께 안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직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원로교우님들이나 환우분들은 사정상 교회에 나오실 수 없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도 코로나 때 나홀로 신앙에 익숙해져서 “나 혼자 집에서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곤함을 피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나 혼자 외롭게 지키는 신앙’을 참 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혼자 모니터 앞에 앉아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질 때 비로소 깊어지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목장 소그룹입니다. 목장 소그룹 안에서 삶과 기도와 마음을 나눌 때, 그곳에서 비로소 서로의 바르스를 등에 지는 사랑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홀로 고립되는 신앙에서 벗어나, 목장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8월 30일 주일에는 박요한 목사님과 러빔 듀엣을 초청해서 1시 30분 이곳 대예배당에서 나눔콘서트가 열립니다. 그리고 콘서트와 더불어 진행되는 ‘조곤 캠페인’을 통해 가난으로 외롭게 버텨내는 지구촌 한 아이에게 우리의 작은 기도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지킴이가 되어주는 그 관심과 사랑을 주님은 결코 모른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9월 5-6일 가평우리마을에서 전교인 수양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전교인 수양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보살피고 함께 기도해 주는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네 형제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네 자매의 짐을 지고 있느냐?” 그 질문에 “네 주님,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내 자매의 짐을 지고 함께 주님의 등에 올라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 일 조 헌 금 (권오진 조고은) (손민승 방세미) (오석만 김선아) (남기정 임혜원) (장재호 전소은) (송호준 황영진) (김기석 나영임) (김명훈 김수미) 김마광 (배운덕 최영숙) (송재용 홍영기) (안대형 최미숙) (안홍순 양경화) (김동수 전순남) (김성점 이윤진) 김은미 (배덕천 김유임 성진) (백진호 박영옥 백수예) (서정식 이인숙 화운) 양명숙 양용자 (오성안 조삼순) 이정희A (이명렬 최성애) 이용환 이윤선 이지혜B 임명숙 (장영재 강정희) (장재혁 이은영) 정옥자 (정현호 송미숙)

월 정 헌 금 (김성수 주현순) (권영만 최명희) 권정임 (김의겸 여혜순) (김태환 임선희) 박정숙 박희 이한나 홍윤기

감 사 헌 금

(김준수 최희성) : 가족여행 중에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즐거운 여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박범택 윤옥희) :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서태희 : 오직 신앙의 유산만을 물려주시고 55년 전 하늘나라에 가신 친정어머니를 추모하며 감사드립니다.

강정희 : 무더운 여름에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손들 믿음으로 주일성수 잘하게 해주시고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이 나라 지켜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정은 박준오) :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김성점 :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김연옥 :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정훈 이주연) :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현애 :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미숙 :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종창 집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심유진 :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안명숙 : 건강히 생일을 맞게 하심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혜순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해자 : 감사합니다.

이순희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서울 :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한나 이재원 이재경) : 장례를 잘 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건화 :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정미애 :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부르짖음에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멘.

조현진 :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 일 헌 금 김연옥 안명숙

특 별 헌 금 강단현화 차상옥 윤해자

창립70주년(전교인수양회)

(김준수 최희성) (배운덕 최영숙) (송재용 홍영기) (이수용 인경구) (이한표 김순영) (배하누 이효은) 5남선교회 7남선교회 6여선교회 7여선교회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창립70주년 나눔콘서트 및 초존 캠페인 : 오늘 오후 1시 30분, 대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전교인수양회 : 9월 5일(토) ~ 6일(주일) 가평우리 마을에서 “위드(WITH)2026”라는 주제로 있으며, 5일(토)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준비물 : 6K 티셔츠, 세면도구&수건, 개인약)
- 주일예배안내 : 6일(주일) 오전 11시, 가평우리마을에서 있으며,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가평우리마을 예배 참석을 못하시는 분은 오전 11시, 중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당일 주차는 교회 주차장만 가능합니다.
- 제자양육반 <생명의 삶> 제3기 수강 신청 안내 :
주중반(수요일, 9월 9일 개강) 저녁 7-9:30
주말반(토요일, 9월 12일 개강) 오전 10-12:30
9월 9일(수)까지 교회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2만원, 총 13주 과정)
- 9월 임원회 : 13일(주일) 자료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9월 예배담당 :

주	주일		수	수요성서
	기도	성경봉독		
			2	홍석은
6	안홍순	중고등부	9	홍주연
13	김기석	조미숙	16	황영진
20	이평식	이지혜B	23	황인선
27	조상현	심유진	30	7지회

■ 9월 예배위원 :

- 1부 안내위원 : 최명애 헌금위원 : 장춘기 문정이
- 2부 헌금위원 : 정미애 이경희A 김성욱 이현희 안현수 심수현
- 담임목사 동정 : 내일부터 9월 3일(목)까지 서대문지방 교역자 해외연수(중국)에 참여합니다.

■ 모임안내

- 장학금 수여식 :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여선교회 회장단회의 : 9월 2일(수) 오후 12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교우동정

- 감사 : 오늘 카페J 음료를 후원해 주신 박희 성도께

감사드립니다.(박희 성도의 소설 <경성연가>가 <펍 권랜덤하우스>와 출판계약.)

- 감사 : 지역나눔 반찬봉사를 후원해 주신 총여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감사 : 청년부 여름수련회(국내선교)를 후원해 주신 조상현 장로, 김정희 류은숙 권사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도서실 신간도서와 목자 매일성경 묵상집을 후원해 주신 서태희 장로께 감사드립니다.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9월 중 행사

- 목장모임 : 13일, 27일(주일)
- 총목자모임 : 13일(주일) 오후 2시, 찬양대실

■ 금요성령집회(9월 4일)

찬	양	기드온 찬양단
설	교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15-21)
		권 오 진 목사

■ 주일아침예배(9월 6일) - 가평

대 표 기 도	안홍순 장로
성 경 봉 독	중 고 등 부

■ 주일아침예배(9월 6일) - 교회

사회&기도	조 상 현 장로
증 언	남 기 정 목사

■ 주방봉사

- 이번 주 : 1초원
- 다음 주 : 전교인수양회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 로 목 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 담 임 목 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 련 목 회 자 송호준
- 전 도 사 박지연
- 교 육 전 도 사 서지수

- 소 속 목 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 가 지 휘 김정희 김병일
- 반 주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